

박물관건축의 공공·서비스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Public·Service Space in Museums

이정우^{*} / Lee, Jeong-Woo
 김용승^{**} / Kim, Yong-Seung
 박용환^{***} / Park, Yong-Hwa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offer fundamental design strategies for concerning public·service space in museum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and foreign museums. In so doing, it deals with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public·service space. It suggests that the careful consideration about the public·service space should be taken in order to make the museum public in real sense. Some design strategies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fundamental data for a public museum design, in particular at the early stage of the design process.

키워드 : 박물관건축, 공간구성, 공공·서비스공간, 박물관 홀

1. 서론

1.1. 연구 목적

16세기 이후로 하나의 건축유형으로 자리잡은 박물관 건축은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공간적 형태를 질서 지어왔다. 상류계층의 부의 표시, 자기과시를 위한 목적으로 일반 대중과 격리된 채, 수집품에 대한 저장과 일부 전문가를 위한 전시를 위해, 주로 전시 공간과 진입 홀의 성격에만 관심을 보여 왔으며, 이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함없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박물관 프로그램 경향을 보면, 일반대중을 위한 박물관으로서, 전시품에 대한 대중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전시영역과 더불어 대중에게 열려진 공공영역과 교육영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일반대중들이 쉽게 전시품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Josep Montaner(1992)와 Montaner & Oliveras의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 국내에서는 지방자치체의 실행과 더불어 각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들이 많이 건립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박물관 건축

계획은 기존의 전시기능 위주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근에 들어서야 공공영역과 교육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현황에 적합한 연구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시공간을 제외한 관람객편의영역 및 교육영역, 즉 박물관 홀 주변의 공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① 연구의 범위는 박물관 건축의 현대경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그 일반사항을 정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실제 사례를 비교하여 그 적용 정도를 분석하는 것까지로 한다.

② 연구의 방법으로는 연구대상 박물관들의 도면을 통하여 각 공간의 기능, 면적비, 공간구성 등의 현황 및 특성들을 파악,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국내외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국내 박물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1.3. 조사 개요

(1) 조사대상선정

조사대상은 현대의 박물관 경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1990년 이후에 준공된 박물관 중에 연면적이 2000m²이상의 중규모이상의 국립박물관, 도·시립 박물관을 대상으로 7개의 국내 사례를 먼저 선정하였다. 단, 이 중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미술

* 정회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관으로 다른 박물관 계획 시 본보기가 되고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내 사례에 대해 비교 분석이 가능한 비슷한 시기의 비슷한 연면적을 갖는 외국 사례 중에 디자인 측면이 강조되거나 전문성을 강조하는, 또는 전시공간에 치중된 박물관이 아닌 공공박물관으로서 각 기능영역이 고르게 계획되어진 박물관을, 또한 7개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2) 조사대상 박물관

<표 1> 국내 박물관 사례

사례	위치	준공 연도	기호	사례	위치	준공 연도	기호
국립대구 박물관	대구 광역시	1994	A	키아즈마미술관	헬싱키, 핀란드	1994	H
경기도립 박물관	경기도 용인군	1995	B	아를르박물관	아를르, 프랑스	1995	I
국립김해 박물관	경남 김해시	1995	C	쿤스트할	로테르담, 네덜란드	1995	J
국립현대 미술관	경기도 과천시	1986	D	스웨덴현대미술관	스톡홀름, 스웨덴	1986	K
선재현대 미술관	경북 경주시	1991	E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	프랑크푸르트, 독일	1991	L
광주시립 미술관	광주 광역시	1992	F	템즈강 조정박물관	헨리, 영국	1992	M
부산시립 미술관	부산 광역시	1995	G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바르셀로나, 스페인	1994	N

2. 현대 박물관건축의 경향

2.1. 현대 박물관의 역할

(1) 새로운 기능의 요구

1970년대부터 박물관에 새로운 기능들이 요구됨으로서 그 프로그램이 복잡화 하게된다. 따라서 이제 현대의 박물관은 단순한 예술품의 저장공간이 아닌 문화적 관심을 제공하는 실습을 통한 학습, 조사를 위한 장소로 바뀌게 된다.

①기획전시실과 수장공간의 대형화: 전시품의 수가 늘어나고, 이러한 전시품을 저장할 수장영역이 늘어나 지속적인 전시가 아니더라도 연구가 가능하게 되며, 이렇게 저장된 전시품을 기획전시를 통해 전시하게 된다.

②의사소통 기술의 발전: 1970년대부터 문화와 의사소통의 기술은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의 일부가 된다. 즉, 박물관의 전시품과 일반대중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나타나며 대중들이 관람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고 좀 더 친밀해 질 수 있는 방안이 고안된다. 따라서 cinema, video rooms, audio-visual rooms등의 박물관의 정보를 전달하는 새로운 기능들이 덧붙여진다.

③서비스 시설: 일반인이 박물관을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타서비스 시설이 건물 내에 위치함으로써, 반드시 관람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방문도 배려한다.

④단체관람객의 증가: 박물관의 공간이 좀더 명확한 구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단체관람객을 위한 별도의 홀과 판매기능 등의 다양한

영역을 위한 대형 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들과 그 대응은 19세기까지의 gallery, cabinet의 전시공간, 로툰다의 홀 공간으로 이루어진 박물관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2) 공간적 대응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적 대응이 잘 나타나는 예는 이러한 요구로서 나타나는 기존 박물관의 증축부분일 것이다.

①진입동선의 변형: 기존 박물관의 협소한 홀을 변형시키려면 진입부의 변경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진입의 방향을 바꾸어 현대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파리의 Louve Museum 증축(I. M. Pei : 1983)과 미국의 National gallery(I. M. Pei : 1978)의 증축을 들 수 있다.

②형태적 변형: 독일 슈튜트가르트에 Staats Museum(J. Stirling : 1984)에서 스티링은 각각의 새로운 기능을 각기 형태화 하여 강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통적인 박물관의 형태인 'U'형 배치 내에서 각각의 형태를 가지도록 계획하였다.

3. 분석 기준

3.1. 박물관에서 홀의 역할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박물관 홀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접객공간으로서, 일반인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자연스럽게 전시, 교육 등의 박물관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맞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시선유도를 통해 각 기능영역의 위치가 쉽게 인지되고, 각종 정보전달수단을 통해 박물관 전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재광조건으로 인한 폐쇄적 실내 공간에서의 방향성상실 또는 그로 인한 피로감의 누적 등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각 기능영역에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있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의 배치와 형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③박물관의 복합문화 공간화: 박물관이 점차 복합문화화를 위한 공간이 되면서 기존의 전시, 홀의 단편적인 관계 뿐 아니라, 그 외의 복합적인 서비스, 교육영역과의 관계가 그 비중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각의 기능 영역들이 얼마나 쉽게 인지되고,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는 현대에 있어서 박물관 홀을 분석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3.2. 분석 범위

박물관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인을 관람객과 유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하고, 이 두 가지 요인의 상관관계에 따라 박물관의 영역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관람객이라 함은 교육 수강생, 부대 서비스 이용자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박물관 이용객이 된다.

이러한 조합에 의한 영역별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박물관 기능영역

	有유물	無유물
有관람객	1. 전시물과 관람객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영역-전시영역, 교육영역	2. 관람객이 박물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역-교육영역, 편의영역
無관람객	3. 전시물만이 있는 영역-수장영역	4. 박물관의 내재적 기능영역-연구, 관리영역

이중에서, 관람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1.과 2.번의 영역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새로운 경향들을 수용하는 영역은 전시영역이 아닌, 관람객편의영역과 교육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전시기능을 제외한 관람객이 입장할 수 있는 영역 내로 한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3.3. 분석 기준

앞에서 나타나는 박물관 홀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항목을 설정한다.

(1) 홀 주변 기능 분류

먼저, 현대 박물관 건축의 일반적인 공공영역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주 출입구홀: 일반 관람자의 출입, 안내, 휴게 및 동선의 분화 기능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성을 갖는다. 이곳에서 방문자들이 전시, 교육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관리공간과의 동선연결이 필요하다. 필요시 부분적인 전시 및 특별행사를 수용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시 관람 시간과 뮤지엄숍, 식당과의 이용 시간이 다른 상황에 대응하는 보안 체계가 요구된다.

②로비: 매표소와 안내소를 설치, 박물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람객 편의시설을 배치한다. 또한 휠체어 보관 공간과 수납공간이 필요하다.

③오리엔테이션 실: 일반 관람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공간.

④단체관람객 홀: 단체 관람객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와 연결되는 홀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일반 관람객용 로비와 내부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

⑤식당, 뮤지엄 숍, 매표실, 관람 안내실, 자원봉사자실, 시네마, 정보자료실,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숍 또는 서점 등도 위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2) 각 기능공간 면적체계

앞서 살펴본 새로이 나타나는 기능공간들이 박물관 내에서 효율적인 배치가 되기 위해, 그 면적의 배분에 있어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게 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면적비는 각 기능공간에 대한 계획 시 관심의 척도가 될 수 있다.

크게 관람객 편의영역과 교육영역으로 대별 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면적 배분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그 체계를 세운다.

(3) 박물관 홀의 형태

새로이 나타나는 기능공간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그 내

부에 다양한 관람객을 위한 편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박물관 홀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특징적 형태를 취하게 되는지를 분석한다. 즉, 각 기능군으로의 동선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러한 동선의 구분이 미리 파악될 수 있게 하는 공간적 처리방법과 반대로 각 기능영역에서부터 박물관 홀과의 연결과 인식을 분석한다.

그 방법으로는 박물관 홀에서의 수평적 깊이에서 각 기능영역의 시각적 연결과 수직적 깊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체 공간의 인식을 분석할 수 있으며, 각 기능영역과의 연결에 있어 사용되어지는 디자인 요소들, 즉, 계단(grand stair등), 램프 등의 수직 동선이나 시각의 열림과 닫힘을 통한 순차적 인식의 의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4) 각 기능공간의 구성

각 기능영역의 박물관 내의 zoning상태에서 나타나는 위치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서로 연결되어야 할 기능들과 분리된 기능을 연결하기 위한 공간적 처리 수법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분석대상 박물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유형이 있다면, 또한 그것이 세계경향과 다르다면, 그것은 국내 박물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되며, 이러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또한 국제적 경향의 적용정도와 다른점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사례들의 특성도 비교 분석한다.

4. 새로운 기능영역과 면적체계

4.1. 홀 주변의 기능 영역

(1) 국내 사례에서 나타나는 기능공간.

-교육영역: 시청각실(1), 강당(6), 수강회원실(2), 기획전시실(6), 실기실(2), 세미나실(5), 강사대기실(3), 교육비품실(1)

-관람객편의영역: 휴대품보관소(3), 비디오실(3), 도서실(4), 뮤지엄숍(5), 카페테리아(3), 매점(2), 식당(1)

-교육영역은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강당 등이 많은 사례에서 나타났다. 또한 관람객편의영역에서는 뮤지엄숍과 도서실 등이 많이 나타난다.

(2) 국외사례

-교육영역: 강당(5), 기획전시실(6), 실기실(5), 세미나실(3)

-관람객편의영역: 휴대품보관소(1), 비디오실(2), 도서실(5), 뮤지엄숍(5), 카페테리아(7)

-교육영역에서는 강당, 기획전시실, 실기실 등이 많이 나타나며, 관람객편의영역에서는 도서실, 뮤지엄숍, 카페테리아가 많이 나타난다.

(3) 국내, 국외사례 비교

-교육영역: 국외사례에서는 특징적으로 실기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사례에서는 2개 사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국내 사례에서는 강당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 독립적인 출입을 갖고 있어 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은 국내의 경우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직 국외의 그것보다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관람객편의영역: 국내에서 3개 사례에서 나타나는 카페테리아가 국외사례에서는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외국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일반대중과 가까이 하려는 목적에서 카페테리아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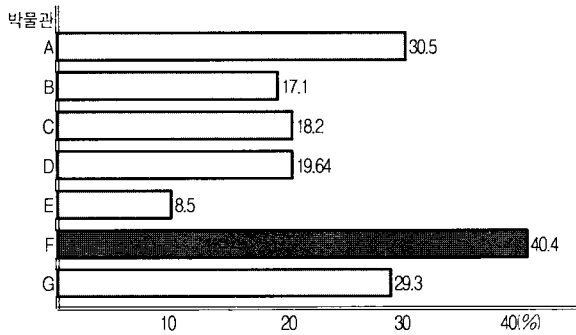
4.2. 각 기능영역의 면적배분

로비, 중앙 홀을 포함하는 관람객편의영역과 교육영역, 전시영역 등 관람객이 이용하는 기능영역의 면적 총합을 이용하여 관람객편의 영역과 교육영역의 면적비를 구하여, 각 영역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체계를 세운다.

(1) 교육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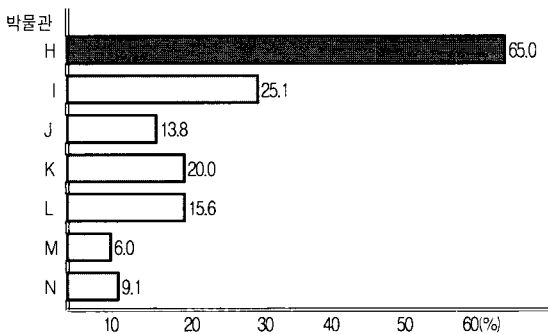
-국내사례: 위의 도표에서 보이듯이, 평균면적비는 23.4%, 최소면적비는 8.5%로 선재현대미술관(E), 최대면적비는 40.4%로 광주시립미술관(F)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선재현대미술관은 기획전시의 비중이 없고, 광주시립미술관은 기획전시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으로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표 3> 국내사례의 교육영역 면적비



-국외사례: 평균면적비는 24.3%, 최소면적비는 6.0%로 조정박물관(M), 최대면적비는 65.0%로 Kiasma미술관(H)으로 나타났다. 이 중 Kiasma미술관은 교육기능에 중점을 둔 미술관으로 특수한 예가 된다.

<표 4> 국외사례의 교육영역 면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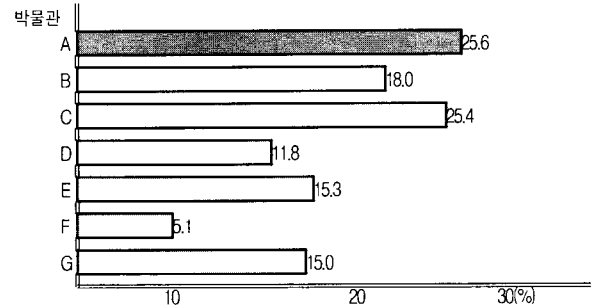


-국내외 사례 비교: 최소면적비와 최대면적비의 사례를 제외하면, 국내사례의 경우 17.1-19.6%, 29.3 30.5%의 두 가지 범위가 나타나고, 국외사례의 경우 15.6-25.1%까지의 고른 하나의 범위가 나타난다. 따라서 그 체계의 정립이 국외보다 미비함을 알 수 있다.

(2) 관람객편의영역

-국내사례: 평균면적비는 16.6%, 최소면적비는 5.1%로 광주시립미술관(F), 최대면적비는 25.6%로 국립대구박물관(A)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국립대구박물관은 로비와 중앙 홀, 강당 홀 등이 전체면적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표 5> 국내사례의 관람객편의영역 면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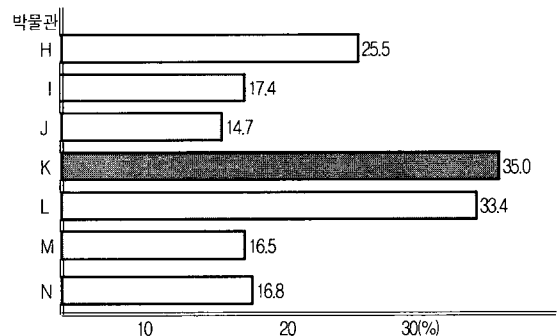


-국외사례: 평균면적비는 23.1%, 최소면적비는 14.7%로 Kunsthal(J), 최대면적비는 35%로 스웨덴 현대미술관·건축박물관(K)으로 나타났다.

Kunsthal의 경우 순환식 전시동선으로 중앙 홀이 없으며, 카페테리아 이외에는 별다른 관람객편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

-국내외사례비교: 우선 평균면적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박물관에 있어서의 관람객편의영역의 위상이 아직 미비함을 알 수 있다.

<표 6> 국외사례의 관람객편의영역 면적비



5. 박물관홀에서의 각 기능공간의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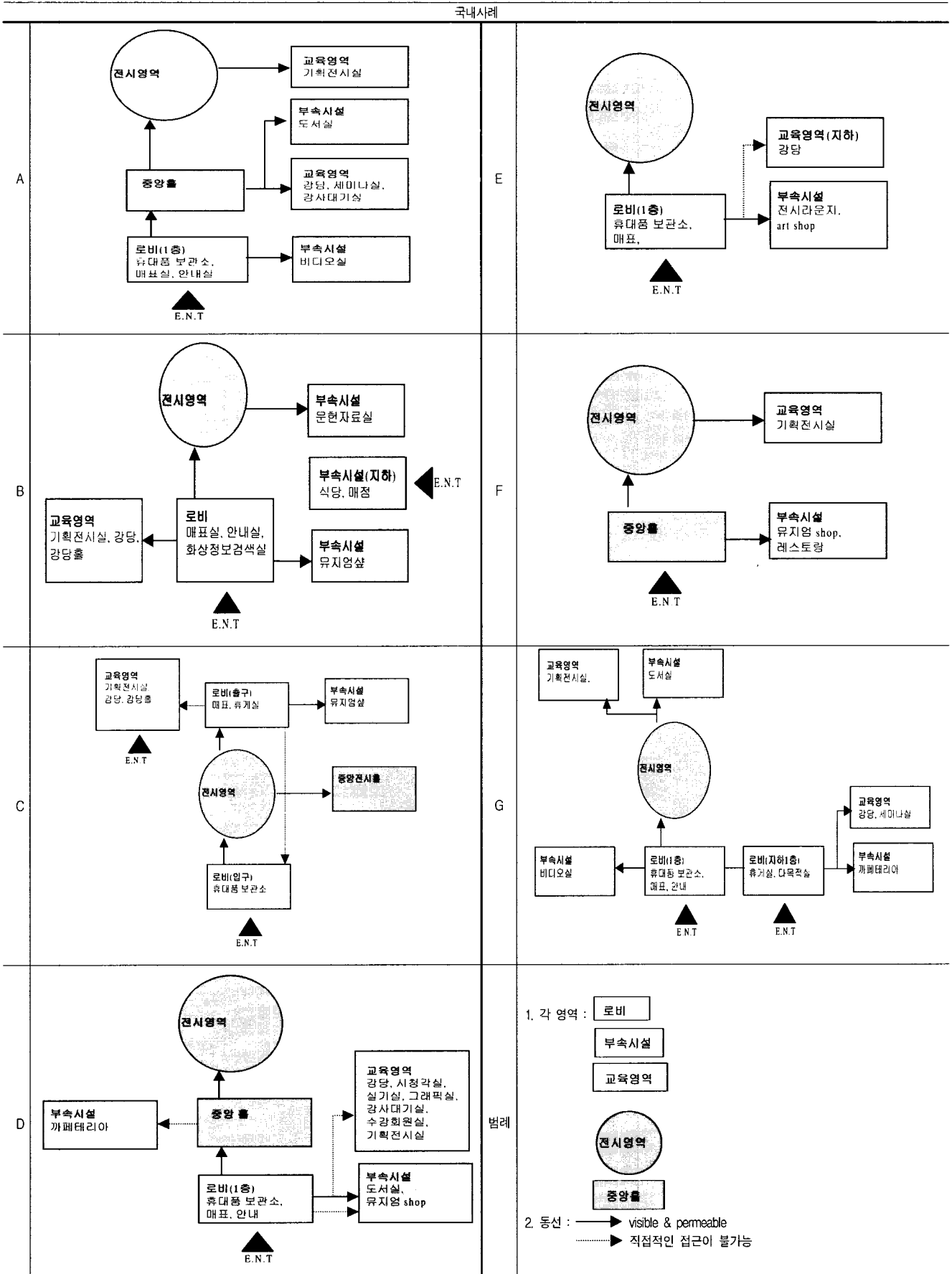
5.1. 박물관홀의 공간구성

-<표 7>의 공간구성도 에서 보여지듯이, 대부분의 사례에서 전 시설은 채광의 목적으로 상층부에 위치하며, 저층부에는 관람객편의 영역, 교육영역 등이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입로비에서는 각 기능영역의 시각적 연결을 위하여 수평적 깊이가 강조되며, 중앙 홀에서는 전시공간에 대한 배려로서 수직적 깊이가 강조된다.

(1) 국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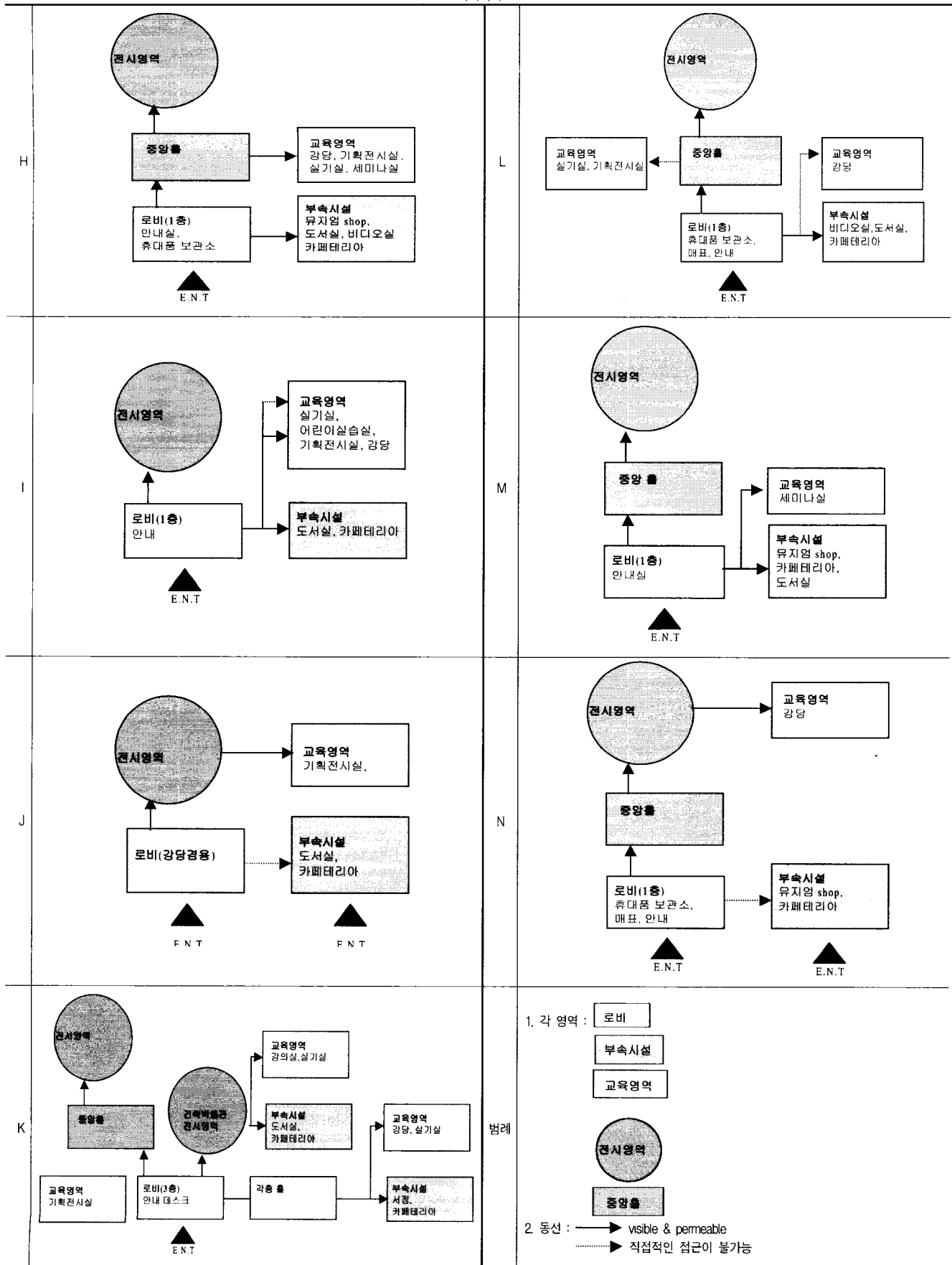
-진입 로비: 대부분의 사례에서 나타나며, 부속시설과 교육영역을 연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기능의 일부를 중앙 홀이 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대구박물관의 경우, 중앙 홀에 교육영역과 전시영역이 같이 연결되어 상당히 혼잡한 동선을 이루게 된다.

<표 7> 각 사례의 공간구성도-국내사례



<표 8> 각 사례의 공간구성도-국외사례

국외사례



-중앙 홀: 중앙 홀이 없는 사례가 3개나 되며, 중앙 홀이 로비의 기능을 하고있는 사례가 1개, 로비가 중앙 홀의 기능을 하고 있는 사례가 1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직 국내의 경우 로비와 중앙 홀의 기능에 대한 생각은 있으나, 실제의 적용에 있어 그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립김해박물관의 경우 순환식 동선의 사용으로 로비에서 전시공간으로 바로 진입되며, 중앙 홀은 전시실에서 전시실 사이의 휴게공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2) 국외사례

-진입로비: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례에서 부속시설과 기획전시, 실습실을 제외한 교육영역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기획전시와 실습은 기획전시가 기능분류상 전시영역에 위치함으로써 중앙 홀에서 또는 전시영역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 홀: Arles 고대사 박물관과 Kunsthal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례에서 중앙 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Kiasma미술관의 경우에는 교육영역이 강조됨으로서 중앙 홀을 통해 각층에 위치한 교육영역(실기실, 세미나실, 강당, 기획전시실)으로 연결되어진다.

(3) 국내의 사례 비교

-국내의 경우 진입로비와 중앙 홀의 개념은 나타나고 있으나 그 경계가 모호하게 사용되어짐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외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처럼 진입로비와 중앙 홀의 성격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5.2. 각 기능공간의 구성

(1) 국내사례

-앞 절에서 보여지듯이 대부분의 사례에서 로비와 연결되어야 할 기능들이 중앙 홀이나 기타 다른 영역에서 연결되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립김해박물관의 경우 진입로비에는 매표와 안내의 기능도 없으며, 관람동선의 끝부분에 대부분의 부속시설, 교육영역이 위치하고 있어 구성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면 강당의 크기가 전체 면적에 상관없이 상당히 크며, 출입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박물관의 프로그램과 별도로 운영됨을 나타낸다.

(2) 국외사례

-대부분의 사례에서 뮤지엄숍이나 카페테리아, 비디오실, 강당 등이 로비에서 연결되어 전시품 관람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다. 국내 사례와는 달리 강당이 박물관 내부에서 연결되어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내외 사례 비교

-국내사례의 경우, 카페테리아, 강당 등이 전시영역에 연결되거나, 교육영역이 중앙 홀에 연결되는 등, 공간 구성상의 체계가 보이지 않는다. 크게 로비에서 중앙 홀로, 중앙 홀에서 전시영역으로의 흐름은 나타나며, 이에 대한 연결로서 계단, 램프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내부의 세부적인 공간들의 배치나 구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외사례의 경우 모든 사례에서 카페테리아, 도서실, 강당, 세미나실 등의 기능들은 모두 진입로비에서 연결되어, 박물관의 이용 목적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6. 결론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지어진 국내 박물관의 경우, 세계적 추세 속에서 박물관 홀과 그 주변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그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고, 각 기능공간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공간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교육영역에 있어 평균면적비는 국내사례(23.4%)의 경우 국외사례(24.3%)와 비슷하게 나오지만, 실제 기능공간에 있어 국내는 전체 면적에 비해 비교적 큰 강당과 세미나실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당의 경우 박물관과는 관련이 없는, 지역의 다른 행사나 공연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국외 사례에서는 일반인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실기실의 비중을 높여 좀더 적극적인 대중박물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다.

둘째, 관람객 편의 영역에 있어서도, 국외(23.1%)의 경우가 국내(16.6%)의 경우에 비해 평균면적비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 기능공간에 있어서도 국외사례에서는 카페테리아 등을 통해 일반인들을 쉽게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박물관 홀에 있어, 국내의 경우 그 기능이 로비와 중앙홀로 분리된 예가 2개 사례로 국외의 그것(5개 사례)에 비해 부족함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기능도(표 7, 8)에서 보여지듯, 그 역할의 분담에서도 체계 없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각 기능에 대한 사용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공간 구성의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박물관의 일반대중에 대한 봉사라는 현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현상으로 필연적으로 박물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연결되며, 진정한 대중박물관으로서 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Josep Montaner & Jordi Oliveras 著, The Museums of The Last Generation, 1986
2. Josep Montaner 著, 이경훈 譯, 태립문화사, 현대박물관, 1996.6
3. 문화체육부, 21세기 박물관 발전정책 및 프로그램개발연구, 1997.12
4.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건축과 환경, 1995.11
5. 서상우, 기문당, 박물관·미술관총서, 1995
6. 류민경, 국내 박물관건축의 공간구성계획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원, 1998
7. The Royal Ontario Museum, Communicating with The Museum Visitor, 1976

<접수 : 1999. 8. 2>